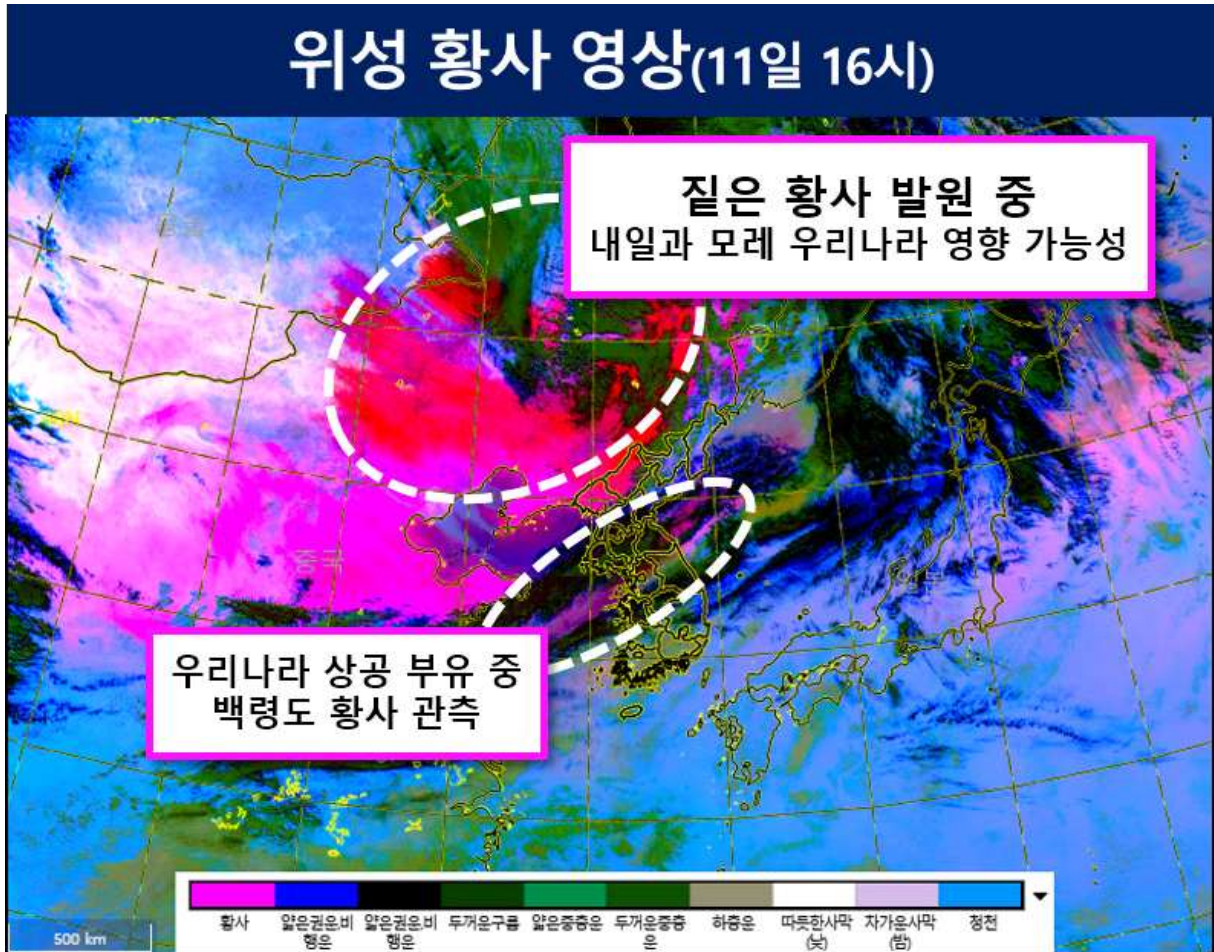


12~13일 제주도 황사 가능성



[위성 황사 영상(4월 11일 16시)]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전재목)은 4월 12일부터 13일 사이 제주도에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, 황사 전망을 발표하였다.
- (현황) 어제(10일)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어, 15시 50분을 기해 서해5도(백령도)에는 황사가 관측되었다.
 - 또한, 내몽골고원 등 황사발원지에서 오늘(11일) 새벽부터 추가적으로 발원하고 있는 황사가 매우 짙은 농도로 중국에서 관측되고 있다.

○ (전망) 이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어, 기류의 흐름이 정체되는 내일(12일)과 모레(13일) 사이 제주도에는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혔다.

- 특히, 국내 영향 범위와 농도 수준, 그리고 지속시간은 추가 발원량과 기류에 따라 유동적이나,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세먼지 예보(매일 05시, 11시, 17시, 23시 발표, 국립환경과학원)를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“내일(12일)과 모레(13일)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으니,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	김충기 (064-909-3920)
		담당자	전문관	한경훈 (064-909-3920)

